



part

09 해외곡물시장 뉴스

2014 World Grain Market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p>북아메리카</p>	<p>아시아</p>
<p>미국 미국 옥수수파종 73%완료, 대두는 33%완료 USDA, 풍부한 곡물공급 전망</p>	<p>중국 중국, 브라질산 옥수수 소량 수입 중국, 미국산 주정박 수입허가증 발행 중단 일본 일본, 엘니뇨 발생시기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함 태국 태국, 쌀 농가 지불금으로 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 차입예정 인도 문순, 인도해안에 평소보다 약간 늦게 인도, 옥수수 수출증가 그러나 여전히 연강하락세</p>
<p>남아메리카</p>	<p>오세아니아</p>
<p>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 4,3백만 헥타르로 전망 아르헨티나, 옥수수생산량 25백만 톤으로 상향전망</p>	<p>호주 호주, 엘니뇨 발생 가능성 약 70%로 전망</p>
<p>아프리카</p>	<p>유럽</p>
<p>이집트 이집트의 밀 수입규정 조정으로 프랑스산 밀 공급 상향전망</p>	<p>프랑스 프랑스 옥수수파종 거의 완료</p>

1. 미국

■ 미국 옥수수파종 73%완료, 대두는 33%완료

지난 주 미국 중서부지역 강우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이 둔화되었으나 USDA 데이터에 따르면 농가들의 원래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USDA의 주간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파종속도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 약간 둔화되었다고 한다. 5월 18일 기준 옥수수파종은 73% 완료로 지난 주 59%대비 상승하였으나 5년평균치인 7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두파종도 33%완료로 5년평균치 38%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USDA 국립농업통계서비스의 일리노이 현장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강우와 서늘한 기후는 지난 주 파종을 둔화시켰다” 라고 한다. 옥수수재배 지역 중 북부지역은 습하고 차가운 토양으로 파종이 지연되어 노스다코타 지역은 옥수수파종 17%, 대두는 5% 완료되었다. 미네소타의 국립농업통계서비스 사무소에 의하면 옥수수파종은 28%로 그 지역의 5년평균치보다 뒤처지며 대두파종도 평균기간보다 11일 지연되었다고 한다. (2014.5.20.)

■ USDA, 풍부한 곡물공급 전망

USDA의 두 번째 2014/15년 미국 및 세계곡물전망에 따르면, USDA는 미국의 풍부한 옥수수 및 대두공급을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밀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밀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카고 밀 선물가격은 2월28일 이후 약 2%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옥수수도 풍부한 공급전망으로 1% 하락하며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대두가격도 1% 하락하였다.

2014년 미국산 겨울밀 생산량 전망은 전년대비 10% 하락한 13.8억 부셸로 5월 추정치보다도 2% 하락할 것이다. USDA는 적색경질 겨울밀 생산량은 하향조정하였으나 적색연질 겨울밀은 상향 전망하였다. 올해, 총 밀 생산량은 미국 남부 및 중부 평야와 태평양 북서부지역의 작황부진으로 인해 무역 전망치인 19.64억 부셸을 하회하는 19.42억 부셸이다. 2014/15년 세계 밀 공급량 전망은 4.1백만 톤 상승되었으며 기말재고량도 상향 전망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및 유럽연합의 생산량이 확대 전망되었다. Global Commodity Analytics의 분석가 마이크 주

줄로는 “러시아가 밀 생산량을 1백만 톤 확대시킨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라고 전했다. (2014.6.12.)

2.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 4.3백만 헥타르로 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은 4.3백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4.1백만 헥타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남미 국가들의 2013/14 밀 재배면적은 3.62백만 헥타르였으며 수확량은 10.1백만 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번시즌 파종면적의 증가는 높은 국제 밀가격 및 작황에 이상적인 기후에 기인한다. 곡물거래소 주간보고에서는 “적절한 토양수분, 유리한 가격 및 종자 가용성이 파종면적 전망확대에 많은 작용을 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부 장관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2013/14에 밀 3.65백만 헥타르를 재배하여 9.2백만 톤을 수확했다고 한다. 또한,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3/14 곡물 파종면적은 3.61백만 헥타르이며 9.5백만 톤이 수확되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아직 2014/15 밀 파종면적이나 생산전망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가 없다. 남반구 겨울밀 재배가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6월과 7월에 대량의 밀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매년 국내수요 분으로 6.5-7백만 톤의 밀을 공급하고 나머지 수확분은 정부 쿼터시스템 하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014.5.16.)

■ 아르헨티나, 옥수수생산량 25백만 톤으로 상향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2013/14년에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상업용 옥수수 25백만 톤을 수확하여 이전추정치인 24백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이상적인 기상여건이 특히 늦게 파종된 옥수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시즌 수확량인 27백만 톤과 비교했을 때 7.4% 낮은 수준이다. 화요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2013/14년 수확량 중 이

미 41.6% 수확을 마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주 초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도 2013/14년 옥수수 수확량을 23.9백만 톤에서 24.5백만 톤으로 상향 전망하였다. 한편, 2013/14년 대두수확은 88.1% 완료되어 전주대비 7.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나 작년 수확속도와 비교하면 10.8%포인트 뒤쳐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2014.6.13.)

3. 중 국

■ 중국, 브라질산 옥수수 소량 수입

아시아 국가 대사관에 의하면, 중국은 3월 31일 발효된 브라질산 옥수수수입 공식승인 이후 브라질산 옥수수를 소량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대체로 미국이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질 검출 이후 1백만 톤이 수입취소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선적이 제한되었다. Li Jinzhang 대사는 “지금까지 브라질산 옥수수는 매우 제한된 물량만 수입되었는데, 향후 수입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브라질은 중국의 주요 옥수수수입국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이미 중국의 최대 대두수출국으로 중국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물사료에 쓰이는 곡물 및 오일시드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USD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3/14년 옥수수 20백만 톤, 대두 44.5백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2014.5.27.)

■ 중국, 미국산 주정박 수입허가증 발행 중단

중국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옥수수형질 검출 우려로 미국산 주정박 (DDGs)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행을 중단했다. 중국 검역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이미 선적된 물량 중 MIR162가 포함된 것은 재수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주정박 수입항구가 있는 칭다오는 이미 지난 달 재수출하지 않은 수입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입허가증 발행을 중단했다.

중국은 가축사료로 쓰이는 주정박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주

정박 613,678톤을 수입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2월 중국정부의 정밀조사로 2,000톤 이상의 옥수수가 수입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52% 상승했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질 검출로 인해 수입제한된 선적분은 아직까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제한된 선적분 중 250,000톤을 재수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수입업자들은 수출을 할 주정박 수입국들을 찾기가 어려워 재수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6.10.)

4. 일본

■ 일본, 엘니뇨 발생시기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함

일본 기상청은 엘니뇨 발생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2월 처음으로 올해 엘니뇨 가능성을 예측한 기관으로 이번 여름 발생할 것이며 적어도 가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의 사용가능한 데이터와 예측모델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엘니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상청이 7월초 월간 업데이트를 발표하게 되면 구체적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엘니뇨는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시켜 세계 각국 다른 지역에 폭우와 가뭄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쌀, 밀 및 원당 등 주요산물 생산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또한, 기상청은 11월 해수면 온도 전망치도 낮췄다. 현재 11월 해수면 온도는 이전 전망치인 3도보다 낮은 약 2도로 하향전망되고 있다. (2014.6.10.)

5. 태 국

■ 태국, 쌀 농가 지불금으로 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 차입예정

태국 재무부 장관에 의하면, 태국정부는 쌀 수매제도 하에서 사들였던 몇 달치

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다음 달 초 15억 달러(500억 바트)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관은 대출금을 입찰하기 위해 32개 금융기관을 초대할 것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500억 바트에 대한 입찰이 먼저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400억 바트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국영은행은 정부의 연체금을 약 900억 바트로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은 6월 6일에 300억 바트 대출 입찰을, 6월 13일에 나머지 200억 바트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5.26.)

6. 인도

■ 몬순, 인도해안에 평소보다 약간 늦게

평소보다 며칠 늦은 금요일, 인도의 남부해안에 장맛비(Monsoon)가 내렸으며 여름작물 생장에 중요한 우기를 기다리던 농가들의 우려를 잠재웠다. 쌀, 콩 및 원면은 인도 북서부 및 남부지역에서 이미 파종이 시작되어 약간 지연된 몬순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시아에 가뭄을 야기하는 엘니뇨는 4개월 장마기간 중 후반부 강우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델리 인도기상청(IMD)의 국가기상예측센터장(NWFC) 야다브는 “장마철 중 첫 달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기상청은 엘니뇨의 높은 발생가능성과 함께 짧은 몬순기간을 예측했다.

기상청직원은 지난 금요일 몬순의 시작을 확인하였다. 몬순은 케랄라 남부지역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되는 강우량 및 편서풍의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장마기간 중 첫 주의 강우량은 인도의 평균 강우량의 약 40%가 감소하였다. 연간강우의 북쪽으로는 진행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6월 상반기까지 인도의 절반을 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인도정부의 올해 이른 작물파종 조언, 원면, 콩, 옥수수 및 대두의 단기간종자 이용 조언에 주의를 기울였다.(2014.6.6.)

■ 인도, 옥수수 수출증가 그러나 여전히 연간하락세

인도의 옥수수수출은 풍부한 옥수수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지난 몇 달간 증가하였으나, 2013/14년 전체 선적을 중단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러한 연간 하락세는 브라질과 미국과 같은 경쟁 수출국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의 주 수입업자들에게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인도의 최대옥수수 수출업체 Anil Nutrients Ltd의 부사장 Raju Choksi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수출거래가 급등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로 올해 수출량이 작년보다 나올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전했다. 이어서, 옥수수 선적량이 작년 4.7백만 톤에서 2014년 9월까지 3.5-3.7백만 톤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4월 기간동안 수출량은 총 2.1백만 톤으로 2012/13년 동기간보다 약 1백만 톤 적었다고 한다.

니자마바드의 상인에 따르면, 유통년도 시작시점의 인도산 옥수수가격은 톤당 20-25달러로 남미산 옥수수 수출가격(FOB)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Choksi에 따르면, 최근 인도산 옥수수 수출가격(FOB)은 톤당 240달러로 남미산 가격 2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3월에 국내산 겨울옥수수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2014.6.13.)

7. 호 주

■ 호주, 엘니노 발생 가능성 약 70%로 전망

호주 기상청(BOM)은 올해 엘니노 발생가능성을 여전히 70%로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4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후모델의 절반이 8월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를 야기하는 엘니노는 바람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 다른 지역에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며 곡물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다. (2014.6.3.)

8. 이집트

■ 이집트의 밀 수입규정 조정으로 프랑스산 밀 공급 상황전망

세계 최대 밀 수입국들 중 하나인 이집트는 프랑스산 밀을 제한했었던 까다로운 수분함량 잠재적 완화 등 밀 수입규정을 조정 중에 있다. 이집트의 주요 국가수입처인 GASC와 민간 수입단체들은 연간 10백만 톤의 밀을 수입하며 국제적 밀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프랑스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밀 공급국으로서 이집트의 엄격한 곡물수분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급참여는 입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이집트가 부담할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다.

1월, GASC는 허용 수분함량을 13.5%로 지정했고 2013년 수확분 프랑스산 밀의 평균 수분함량 역시 13.5%였다. 그러나 GASC의 부의장 압텔 파타흐는 제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밀 수분함량 제한도 13%로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주요 목적은 밀 수입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에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수입규정 조정이 있기 전 발언이긴 하지만, GASC 감독기관인 공급부 장관 칼레드 하나피는 수분함량 규정이 변화없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프랑스 밀 상인들은 이 기준에 맞춰 밀을 건조시키도록 권고했다.

GASC의 이러한 수입규정 조정은 2014년 프랑스산 밀 구매허용을 위해 곧 적용될 것이다. 한 유럽상인은 “이는 프랑스 밀 시장에 좋은 소식이다. 현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으며 프랑스의 수출상인들도 예상치 못한 이집트의 절충안이라고 했다.

한편 상인들과 은행원들에 따르면, 이집트는 감소하는 외환보유고로 국가기관이 구매한 식품에 대한 지불절차가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럽상인은 “이러한 수분함량 변화는 프랑스 수출업자들에게 수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집트도 더 많은 수입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고 하며 “이집트는 수입지불액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낮은 가격의 수입보장을 위해 수입국 우선순위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이집트의 대선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용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014.5.28.)

9. 프랑스

■ 프랑스 옥수수파종 거의 완료

FranceAgriMer의 주간곡물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옥수수파종이 5월 12일까지 목표 재배면적의 약 92%까지 진행되어 거의 완료되었다고 한다. 4월 말 강우로 인해 파종후기단계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작년 파종속도를 앞서고 있어, 전주 83%, 지난 해 77%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작황도 대체로 좋은 편으로 옥수수작물의 91%가 good/excellent rating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다른 겨울곡물도 작년 성장세를 앞서고 있다. 연질맥의 44%가 heading stage로 지난 해 6%에 대비하여 높은 성장률이며, 모든 겨울보리는 heading stage로 작년 38% 대비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질맥과 겨울보리는 지난 3개년 평균 성장속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빠른 상태에 있다. 또한, 3월과 4월 매우 건조한 기후 이후 최근 강우로 인해 봄보리의 작황도 소폭 개선되었다. 봄보리의 약 70%가 good/excellent rating으로 전년 79%, 전주 69% 대비 상승했다. 또한, 밀과 겨울보리의 작황도 전주와 동일하게 각각 73%, 70%가 good/excellent rating이다. (2014.5.17.)